

## 2015년 독일 본 (Bonn),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

39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글. 조인숙 | CHO In-Souk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국제건축사연맹(UIA) '문화정체성 및 건축유산' 분야 국제디렉터

이코모스 - 역사건축구조수리 학술위원회 (ICOMOS-ISCARSAH) 부회장

### 제39차 본 (Bonn) 회의 개요

2015년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독일 본 (통일 전 서독의 수도)의 월드 콩그레스 센터 (WCC Bonn)에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렸다. 주요 안건은 위험에 처한 유산들의 보호 및 보존에 대한 사항,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유산들의 신규등재여부, 세계유산의 지속가능 전략 등이다. 주요 지표를 한 번 살펴보면 약 160개국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약 191개국이다)에서 2,200명 정도가 참석했고 155 종류의 언론도 참석했다. 올해의 성과는 신규등재가 24건인데 그 중 하나는 자연유산이고 나머지 23곳은 문화유산이다. 이 24건 중 한 곳은 한국의 백제역사지구다. 그 밖에 세(3) 곳이 새로이 위험에 처한 유산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1) 곳, 즉 콜롬비아의 로스 카티오스 국립공원 (Los Katios National Park in Colombia)은 각고의 노력 끝에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에서 벗어나서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성공사례로 기재되었다. 행사기간 중 60여 종류의 부대행사가 있었고 개최인 본에서는 "World Heritage Review" 특별판을 출간했다. 팔목할만한 내용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여사의 제청으로 무장세력에 의한 세계유산 훼손을 막자는 "Unite4Heritage"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위원회 시작 시 독일국무장관이자 대회 의장인 마리아 뵘머(Maria Böhmer) 교수의 주재 하에 세계유산에 관한 본 선언 (Bonn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이 채택되었다. 대회 전 사전 행사로는 6월 18일-29일까지 31개국에서 선발된 젊은 전문가 (Young Experts)들의 지속가능한 유산관리 운영에 관한 워크숍이 있었고; 대회기간 동안 세계 각 지역에서 유산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13분들에 대한 "세계 유산의 영웅들 (Heritage Heroes)" 포스터 전시가 대회장 로비에서 있었다. 실무관련 해서는 공식회의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운영지침을 수정하는 회의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2015년도 회장단은 의장국 독일과 각 지역별 부의장국 크로아티아, 인도, 자메이카, 카타르, 세네갈이었으며 서기(Rapporteur)로 레바논의Hicham Cheaib가 수고를 했다.

2016년도 제 40차 세계유산 위원회는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고 선출된 회장단은 의장국 터키

와 각 지역별 부의장국으로는 레바논, 페루, 필리핀, 폴란드, 세네갈이고 서기(Rapporteur)로 한국인 Eugene Jo씨가 선출되었다.

### 참고할만한 점

개회식부터 폐회까지의 행사를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필자는 한국의 대표단 중 하나가 아니고 비정부기구인 국제건축사연맹을 대표하여 참석하다 보니 정부간의 외교적인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되었고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 회의를 볼 수 있었다.

2015년 위원회 및 총회의 진행관련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지탱가능성이 더 맞는 듯)이라는 기치하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엄청난 노력이다. 그 사례로는 인쇄물 없이 USB에 자료를 담을 수 있도록 한 점; 교통편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한 점; 그리고 음식준비에는 되도록 현지 조달이나 계절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유기농 재료 사용을 권장한 점; 참가자 모두에게 500ml용량의 스테인리스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고 계속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회의를 선도하고 냉방도 섭씨27도 정도로 맞춰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독일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전 과정을 지켜 보면서 '세계유산위원회(WHC)'의 등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힘"과 "정의"라는 것을 보았다. 무장세력에 의한 파괴는 용서가 안되지만 자연재해는 규칙적용을 넘어선다는 것과 이웃이 만행 노릇을 해 주는 의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50%이상이 지진으로 파괴된 카트만두 벨리는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권고를 받았지만 그들의 복구하려는 자구노력을 더 지켜보기로 결정되었다. 여기에는 인접국가인 인도 및 파키스탄 등의 지지 발언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등재보류권고나 등재권고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보다 한 단계 높이 결정되는 데에도 역시 이웃의 외교적인 지지발언이 큰 몫을 했고 품앗이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추어주어서 어깨동무하고 등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등재건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센터에서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연히 들었다. 별 감흥도 없고 별 임팩트도 없는, 그냥 그런 유산들...모범 답안 써서 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의 유산들

이라는 후문도 있다. 세계유산이라는 진정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서 정말 박수 받는 등재 결정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평가단들도 이해관계 저축(Conflict of Interest)에서 자유스러워야 하며 폐쇄적인 활동보다는 공개적 활동으로 그들의 전문성이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세계유산 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유산 위원회는 정부간 위원회로 유네스코 본부에 파견된 대사가 주무 책임을 맡고 국가대표로 참석을 하여 외교적인 발언을 하는 회의다. 이 위원회는 세계유산 협약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기구다. 세계유산협약이란 1959년 이집트 고대 누비아 유적 보호를 계기로 탄생되어 유네스코가 제정한 협약 중 가장 관심을 받는 국제협약이다. 공식명칭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다. 1972년 파리에서 채택되고 1975년 발효된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노력;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 및 총회; 세계유산기금 설치 및 사용기준; 일반인들의 세계유산 보호 인식 증진 교육 및 정보 제공 권장이다.

이 협약은 협약 가입국들로 구성된 총회, 총회에서 선출한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위원회 업무를 자문하는 3개 자문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자연유산 분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문화유산 분야); 국제문화재 보존 복원센터(ICCRROM;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 문화재 보존과 복원 분야)로 운영되며, 실무지침으로는 세계유산협약이 정한 기준내에서 세계유산 등재 및 기준, 심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이 있다. 한국은 1988년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5년 현재 21개 위원국 중 하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2017 UIA Seoul 을 앞두고

지난 2011년 국제건축사연맹(UIA) 도쿄 대회시 6년 후인 2017년 UIA 개최지로 서울시가 강력한 후보로 나섰다. 당시 싱가포르와 멕시코와의 경쟁의 중점사항은 서울은 인구 일천만이 넘는 수도인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세계유산이 세 곳이나 있다는 점이였다. 찬란한 과거를 지닌 멕시코와 화려한 미래를 바라보는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서울시의 이런 점이 부각되어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그렇다. 이미 망가졌다고 또는 계속 망가진다고 해도 서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저마다 제 몫을 하는 도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현재 서울시와 관계전문가들은 서울 한양도성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 참석했던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혹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등재된 서울의 종묘(1995년), 창덕궁(1997년) 및 조선왕릉(2009년)에 이어 서울 한양도성(Seoul City Wall)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를 추진 중인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잠정목록에 있는 서울 한양도성은 2016년 1월 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2017년 6월에서 7월 사이 개최될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참고로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부동산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이 OUV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10가지<sup>1)</sup> 중 하나 이상 충족되면 된다. 등재평가기준 1~6은 문화유산, 7~10은 자연유산 기준이며 공통사항으로는 완전성(integrity)과 보호 및 관리체계다. 그리고 모든 문화유산은 재질 및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를 보유해야 한다는 진정성(authenticity)이 필요하다. 최종 결정사항으로는 등재(inscription); 보류(Referral); 반려(Deferral); 등재불가(not to inscribe)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번이 없는 한 이 한양도성의 추가작업은 서울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다만 서울 한양도성의 유산가치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하여 아주 기본 좋게 평가된 후 등재 결정되어서 2017년 국제건축사연맹 회의 개최 즈음해서는 서울시 소재 세계유산을 하나 더 전 세계 건축사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유네스코와 유산 참조 [http://heritage.unesco.or.kr/wh/wh\\_reg/wh\\_reg\\_criterion/](http://heritage.unesco.or.kr/wh/wh_reg/wh_reg_criterion/)